

서울

•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.3% 감소

- 전년동월대비 -9.3% = 소매업의 기여도 +0.6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9.9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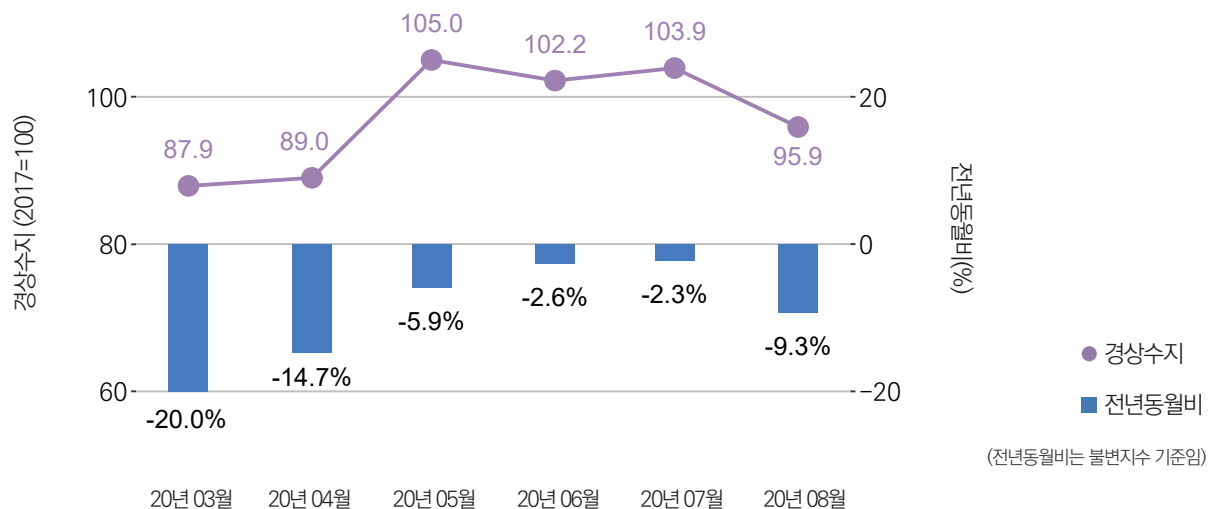
8월 소비경기지수의 감소는 숙박·음식점업의 감소에 기인
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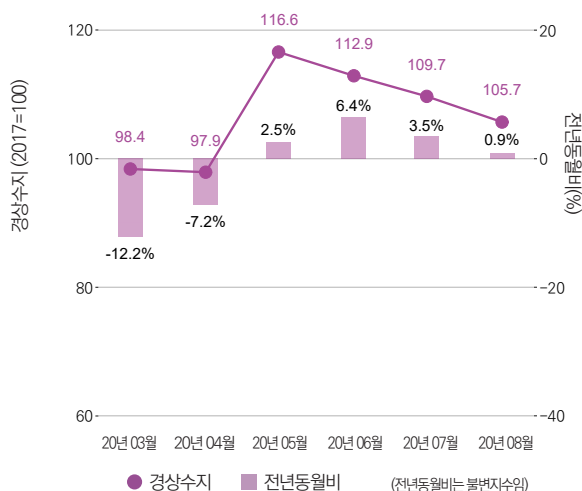
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0.9% 증가, 숙박·음식점업 24.2% 감소

- 무점포소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선전하였으나 음식료품이 증가에서감소로 전환되고,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업의 내림폭이 커지면서 소매업 소비경기지수의 오름폭은 전월보다 줄어듦
- 8월 소비증가 업종은 무점포소매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기타가정용품 등
- 8월 소비감소 업종은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상품, 종합소매, 음식료품 등
- 숙박·음식점업은 음식점 매출이 크게 줄어들며, 재난지원금 사용 이전인 지난 4월(-26.0%) 수준으로 내림폭이 커짐
- 8월 소비증가 업종 없이 숙박, 주점·커피점문점, 음식점업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감소

| 서울 소비경기지수 |



| 서울 소매업 경기지수 |



|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

